病床을 찾는 빛과 사랑

87년 모범독서운동 단체「등불회」

고려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웃음을 나누는 회원들

스스로 독서하기는 쉽지만, 남을 위해 독서운동을 펴기란 결코 쉽지 않다. 1979년부터 해마다 모범독서운동단체를 표창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올해의 수상단체로 등불회를 선정했다.

형광등처럼 밝거나 백열등처럼 강렬한 맛은 없지만, 온유한 빛으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등불회. 그 이름처럼,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독서의 기쁨을 전해줌으로써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작은 등불들의 모임이다.

등불회는 1983년 강남사회복지관 자원봉사교육과정을 수료한 5명이 봉사활동방법을 찾던 중,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던 산업교육훈련원 강사 채규철씨의 조언을 받아,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서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현재 회원수는 40여명. 회원은 3개월 이상 결석없이 참여한 정회원과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준회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책을 사랑하는 남녀 학생과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환자 대상으로 독서운동 펼쳐

오후7시면 외래환자들의 진료시간도 끝나, 병원복도와 병실은 몇몇 방문객들과 의료진들을 제외하곤 사뭇 한적해진다. 환자를 위한 오락시설이라고 해봐야 정원산책이나 TV시청이 고작이라, 그들에게는 일주일에 세번씩 늘 이 시간이면 찾아오는 등불회의 책수레가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7시경부터 시작해서 하루저녁 평균 30~40여개의 병실을 돌고 있읍니다. 대개는 10시를 전후해 끝나게 되지요. 우리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몇권의 새로운 책들을 빌려가는 환자분들을 보노라면, 피로를 잊게 됩니다."

지난 10월16일 서대문 고려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펴고 있던 신윤철, 한영임 두 회원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힘든 때도 많았지만 환자들의 격려와 병원관계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에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4년전에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읍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모으는 일이 힘들었읍니다. 친지들, 출판사와 새마을 운동본부 등의 협조로 500여권의 책을 모아들이는데 근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하고자하는 열의는 강했지만, 주위의 이해와 도움을 얻기 힘들 때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읍니다."

등불회회장을 맡고 있는 李美羅씨(26·삼아실업)는 창간 당시의 고충을 회상하면서, 병원측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우선 책 보관을 위한 장소확보와 책수레(북 카)를 움직일 수 있는 병원공간이 필수적이었으며, 공간적인 조건이 적절하더라도 병원종사자들의 이해부족으로 활동계획이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고.

환자들의 호응을 얻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한영임회원은 말한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책장사인줄 오해하고, 책은 안사니 나가라는 말도 들었어요. 또 유료시설로 알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지요. 마침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병실에 들어가 당황하게 된적도 있었어요."

왕성한 독서열 1주에 5백권 대출

이렇듯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남성심병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등불회는, 이제는 고려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에서 주3회(월·수·금)에 걸쳐 수많은 환자들에게 독서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 의료진들의 격려도 대단해서, 대출대상을 단기환자로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기동이 자유로운 환자들이 병실복도까지 나와 직접 책을 고르며 즉석 독서토론을 벌이는 모습들이 위와 같은 높은 호응도를 말해준다. 5월말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백여권의 책을 읽었다는 최상선씨(45)의 말처럼, 마음껏 독서할 수 있는 것도 즐겁지만 밝고 성실한 모습의 등불회원들을 만나는 일이 더욱 즐겁다고.

장서량도 현재 4000여권으로 늘어나 소설, 수필, 시집, 아동도서, 일반교양서 등 골고루 갖춰져 있다. 1회에 대출되는 책은 평균 50권내외, 3개지역에 매주 평균 450여권이 대출되고 있다. 대출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워낙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이어서 대출후 3일만에 약70%의 도서들이 회수되는 왕성한 독서열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찾는 책은 추리소설을 포함한 가벼운 문학서적류. 환자들이 원하는대로 신간을 구입하다보니 수준이 저하되어, 이제는 양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힘쓰고 있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환자들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잦아, 자연 회원들 스스로도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고

> 등불회는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빛이며 소망이다.
> 3개 종합병원의 장기입원환자들은 매주 어김없이 찾아와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이들의 정성에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신간구입은 회원들의 회비(직장인 3천원, 학생 1천원)와 병원보조금(3~5만원), 독지가로부터의 도움으로 월45권 정도씩 늘려가고 있다.

"가끔 책이 분실되기도 하지만, 낡아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신간구입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찾는 책이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깝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회원들 책꽂이는 텅텅 비어있을 거예요"라고 李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입원환자들이 가족에게 부탁해 책을 기증하기도 하고, 퇴원하면서 신간 몇권을 보내오기도 해 힘을 얻는다고 한다.

아쉬운 사회적 관심… '수상'에 힘얻어

회원들은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계간으로 회지를 발행, 회원 및 잠재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병원별로 팀을 이뤄 한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는 따로 없고, 병원시설 및 가까운 다방을 이용한다. 이때 독서운동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독후감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활동하면서 느껴던 여러가지 갈등에 관해 솔직한 말들이 오가는 때이기도 하다. 숨어서 하는 모든 봉사가 그렇듯이 외로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그저 도서출납을 관리하는 단순한 일이기도 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회원들도 많았다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열의를 갖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아끼지 않게 된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창립 당시의 계획처럼 1년에 한 병원씩 활동범위를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웬만큼 자리가 잡히게 되면 순조롭게 밀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현상태로는 사실 세 군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도 벅찹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일도 힘들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숨어서 도와 주는 사회의 온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는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이번 모범독서운동단체상 수상이 과분하기는 하지만, 회원들 모두 큰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부상으로 많은 책을 기증받게돼 기뻤다고 李회장은 말한다.

병상에 누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쉬운 환자들. 혹 독서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내의 도서실은 찾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의사·간호원들만을 위한 시설이기가 쉽다. 따라서 등불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병원들의 환자를 위한 독서환경 및 기타 시설들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다.

등불회회원들을 반기며 이런 활동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 환자의 바램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많은 사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오애리 기자